군산시, 체납세 징수 강력 추진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 감안 투트랙 징수체제 기본 방향으로 설정 운영

군산시가 2017년 지방세 체납총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산시 과년도 체납액은 총 179억원(2015년까지 누적금액 91억, 2016년 88억)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입은 지방자치의 기본조건'이라는 모토로, 2017년 지방세 체납총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증권계좌, 보험금, 공탁금, 국세환급금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회생의지 및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완화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세를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징수체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으로 징수하고, 하반기에는 현년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세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징수가 이뤄진다.

그동안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방식이 우편을 통한 요청방식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는데 3주 이상 소요됐으나, 최근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3일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채권 확보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세금납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시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 익산교육지원청

설 명절 보훈가족 사랑 나눔 위문 실시

전북서부보훈지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맞아 보훈가족 사랑 나눔 위문을 실시했다..

이날 위문은 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 교육장과 임직원 및 전북서부보훈지청 직원들이 익산지역 취약계층 보훈가족인 황화O님과 정순O님 2가구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류지득 교육장은 지난 2013년부터 전북서부보훈지청과 결연을 맺고 보훈가족 2가구를 설 명절, 추석 명절,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사랑 나눔 위문을 실시하였다.

류지득 교육장은 꾸준히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며 나눔 문화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관들의 후원으로 보훈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 면서 "명절에 소외받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익산소방서, 전북교육연수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익산경찰서, 익산우체국, 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익산폴리텍대학, 금강방송, 익산세무서, 한전익산지사,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처, 누가병원, 농협익산시지부, 금만농협, 광활농협, 김제지율방범대연합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재가복지서비스 및 의료용품 무상제공, 민간장기요양급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중 참전 복합질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복권기금에서 후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호남권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워크숍

취업 인프라 구축 · 진로지도 강화 등 정보 공유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고용노동부 호남권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워크숍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고용정보원과 호남권역 5개 대학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동신대, 목포대, 전남대, 전주대, 원광대) 컨설턴트 등 총 40명이 참한 가운데 원광대 박은숙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고재성 팀장이 '2016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 '2017년 사업방향', '센터평가 계획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특히 각 대학 센터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대학 내 취업 인프라 구축과 진로지도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센터 운영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간 분임 토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41개 대학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60여 개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신규 진입 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마다 6~9명의 취업 컨설턴트를 채용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청년고용 정책 활용,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취업 환경 조성, 조기진로 설정 등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정헌율 익산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관련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해 훈훈한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눴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시설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보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이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이주여성쉼터, 기독삼애원, 동그라미, 익산성모요양원을 찾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사정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 단체, 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통해 석면 비산으로 발생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되며, 올해는 국비를 포함한 총 3억3600만원을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내달 23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철거비용과 폐석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쌀 · 밭 · 조건직불제 신청 · 접수

내달 1일~4월 28일까지

군산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로 식량자급율 제고를 위한 2017년 쌀·밭·조건직불제를 신청 받는다.

쌀·밭 직불제 신청은 내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논이모작 직불(논에 식량·사료작물재배)은 3월 10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통합해 한건으로 신청받으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50만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ha당 평균 45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밭농업직불금은 동일부지에 연1회만 지원가능하다.

직불제 지급면적은 0.1ha로 기준이 완화되어 소농기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관외경작자도 마을이장 또는 마을주민 2명의 확인으로 간소화 됐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수령정보는 기준일로부터 1년간 상시공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소식

익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이동거점장소인 익산역과 익산터미널, 익산IC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선물하기 집중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는 화재 시 초기소화에 사용할 수 있고 신속히 화재를 감지해 대피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 명절을 이용해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집에 선물하고 설치하자는 운동이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립도서관, 2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영화 상영

군산시립도서관은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4편을 선정해 2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상영한다.

먼저 2일에는 동화구출원정대 일곱난쟁이의 모험이야기를 그린 '일곱난쟁이'를, 9일에는 '열두명의 웬수들'을 상영한다.

16일에는 '업'을, 23일에는 도토리요정 토토로와 아이들의 사랑스럽고 순수한 이야기를 담은 '이웃집 토토로'를 상영한다.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인 22일 오후 4시에는 음악영화를 테마로 도서관 속 테마영상실을 운영해 '위플래쉬'를 상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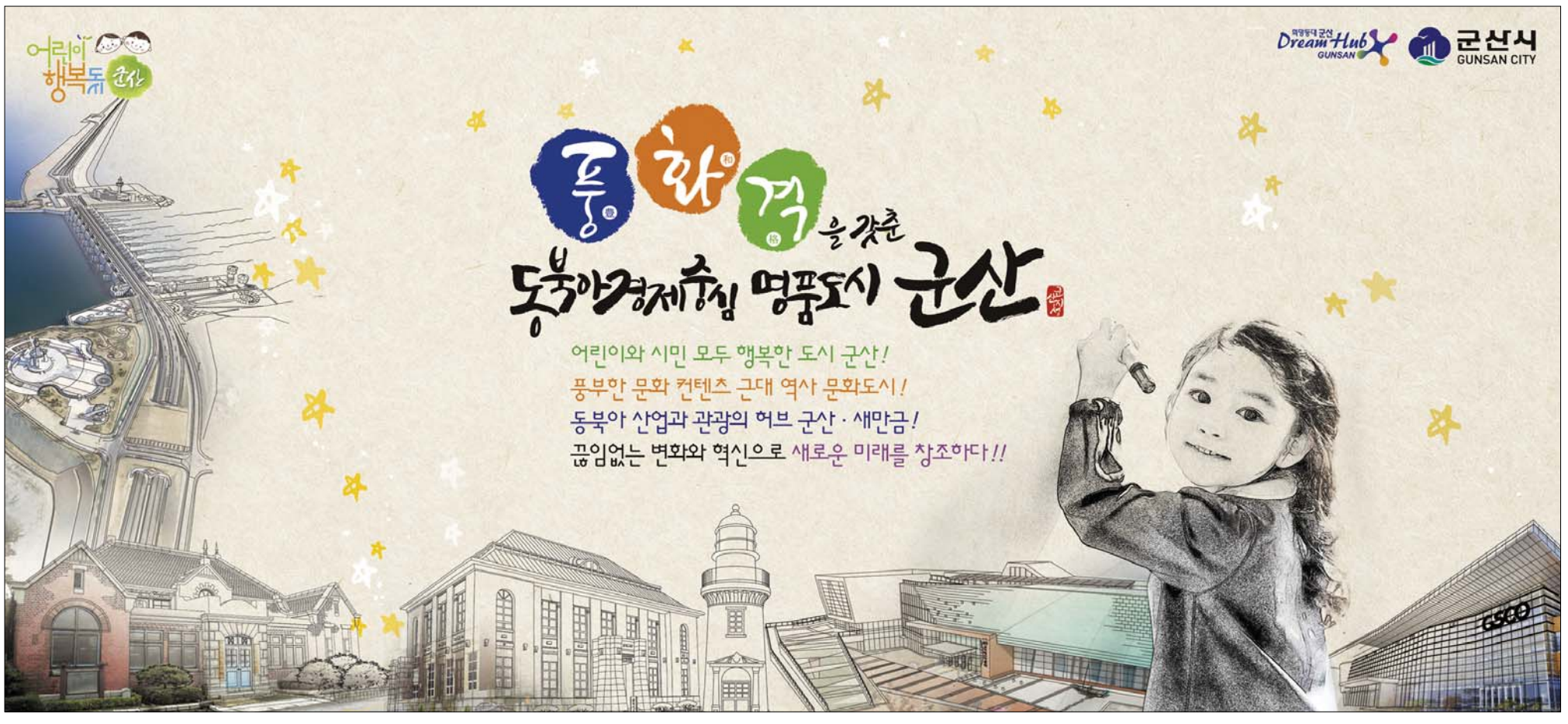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공중목욕탕 수질상태 '양호'

군산시내 공중목욕탕의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영업중인 51개소 목욕탕에 대해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1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 영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원수 및 욕조수를 채수해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등 총 5종이다.

시는 앞으로도 목욕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